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트럼프, 케빈 위사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. 달러인덱스 상승, 금 가격 하락
 - 유로존 4/4분기 GDP 예상치 상회, 소비와 투자 확대 등이 기여
 -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, 추가 금리인하 신중할 필요
 - 미국 12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.5% 상승, 인플레이 우려 확대
- **국제금융시장:** 차기 연준의장 지명과 미국 정부 섀다운 우려 등을 반영
 - 주가 하락[-0.4%], 달러화 강세[+0.9%], 금리 상승[+1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지수는 물가 상승과 IT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는 예상보다 견조한 GDP 발표 등으로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등이 영향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.0%, 1.1% 하락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의사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상승
독일은 포함, 영국은 1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449.3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50.8원, 0.78% 상승). 한국 CDS 포함

		1/30일	1/29일	전일대비			1/30일	1/2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939.0	6,969.0	-0.43%	국채 금리 10y	미국	4.24%	4.23%	+1bp
	유럽	611.00	607.14	+0.64%		독일	2.84%	2.84%	+0bp
	중국	4,117.9	4,158.0	-0.96%		영국	4.52%	4.51%	+1bp
	일본	53,323	53,376	-0.10%	CDS 5y	한국	22bp	22bp	+0bp
	한국	5,224.4	5,221.3	+0.06%		중국	44bp	44bp	+0bp
환율	달러지수	97.15	96.16	+0.90%	위험 지표	EMBI+	-	261	-
	유로화	1.1851	1.1971	-1.00%		VIX	17.44	16.88	+3.32%
	엔화	154.78	153.11	-1.09%		WTI유	65.21	65.42	-0.32%
	위안화	6.9569	6.9524	-0.06%	원자재	구리	592.4	627.7	-4.51%
	원화	1,443.5	1,434.0	-0.66%		금	4,894.2	5,375.2	-8.95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트럼프,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. 달러인덱스 상승, 금 가격 하락

-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힘. 케빈 워시는 다른 유력 후보였던 릭 리더 블랙록 채권투자 책임자보다 매파적인 인물로, 양적완화에 신중한 것으로 평가. 이에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
- 케빈 워시는 모건스탠리, 백악관 경제 보좌진, 최연소 연준 이사, 스탠퍼드 교수 등을 역임. 앞서 코로나 기간 물가상승에 대해 연준의 정책 실수라고 비판하면서 연준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보다 물가 안정 및 최대 고용이라는 제한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
- 미국 상원은 앞으로 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연준 의장을 확정.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파월 현임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가 먼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인준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
- 케빈 워시 지명 소식과 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 상승 등으로 30일 미국 달러인덱스는 0.9% 오르고 S&P500지수는 0.4% 하락. 또한 금 가격은 차익 실현 매물 집중 등으로 9.0% 내리면서 42년래 일일 최대 하락폭을 기록
- LPL Financial은 케빈 워시 지명이 안전한 선택이며,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평가. Capital Economics는 케빈 워시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선호하여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분석. Wells Fargo는 하반기 2회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유로존 4/4분기 GDP 예상치 상회, 소비와 투자 확대 등이 기여

- 유로존의 '25년 4분기 GDP 성장률이 0.3%로 예상치(0.2%)를 상회하고 연평균 상승률은 1.3%로 예상치 부합. 스페인의 4분기 GDP는 0.8%, 독일은 0.3% 증가하면서 유로존 성장에 기여. ING는 소비와 투자 확대가 미국발 무역정책 불확실성을 일부 상쇄하였다면서 독일의 신규주문 증가 등을 긍정적으로 분석

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, 추가 금리인하 신중할 필요

-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은 중립적이며, 노동 시장 악화나 인플레이션 둔화가 명확해지기 전에는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. 또한 고용 충격이 발생할 위험도 줄어들었다고 평가
-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,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자신의 견해는 아니라면서 더욱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

■ 미국 12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.5% 상승, 인플레 우려 확대

- 12월 생산자물가지수(PPI)의 월간 상승률은 0.5%로 전월 및 예상치(0.2%)를 상회하였으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0.7% 상승
- 항목별로는 상품 물가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, 서비스 물가는 전월비 0.7% 상승. 연말 성수기 효과로 호텔 객실 가격은 7.3%, 항공료는 2.9% 올랐으며 무역 서비스 가격도 0.3% 상승. Nationwide는 무역 서비스 가격 상승이 전반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하면서 연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

■ 트럼프, 영국과 캐나다에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위험하다고 지적

-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영국과 캐나다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위험하며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. 한편, 중국을 방문 중인 영국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

■ 인도네시아, 주가 폭락에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 발표, 증권거래소장은 사퇴

- 자카르타종합지수(JCI)가 28~29일 이틀 연속 약 8%씩 급락하면서 거래중단과 재개를 반복. 이는 MSCI가 주주정보 투명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영향
- 이에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유동주식 비율 요건을 15%로 종전의 두 배로 확대하고 투명성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약속하였으며, 증권거래소장은 사퇴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2/2~6일,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, 유로존, 일본 등의 제조업 PMI(2일).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(6일)
- 유로존 소비자·생산자 물가지수(4일). 호주(3일)·영국(5일) 기준금리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31, E-mail jgbaek@kcif.or.kr